

포스코그룹-CNGR, 포항 합작공장 착공

순도 99.9% 니켈 생산... 이차전지 소재 벨류체인 강화

니켈·전구체 공장 동시 착공
순니켈 기준 연산 5만t 생산
“안정적 공급망 바탕 사업 확장”

포스코그룹이 전구체 점유율 세계 1위인 중국 CNGR과 손잡고 포항에 이차전지용 니켈과 전구체 생산 기반을 다진다.

2일 포스코그룹에 따르면 포스코씨앤지알니켈솔루션과 씨앤피신소재테크놀로지는 지난달 31일 포항 영일만4산업단지에 각각 니켈 정제공장과 전구체 생산공장을 착공했다. 포스코씨앤지알니켈솔루션은 포스코홀딩스와 CNGR이 각각 6:4 지분으로 설립한 니켈 정제법인이다. 씨앤피신소재테크놀로지는 포스코퓨처엠과 CNGR이 2:8지분을 투자해 설립한 전구체 생산 법인이다.

이번에 착공한 포스코씨앤지알니켈솔루션 니켈 정제공장은 CNGR의 니켈 제련법인으로부터 순도 70% 수준의 중간재인 니켈매트를 들여와 순도 99.9%의 이차전지용 고순도 니켈을 생산할 예정이다. 니켈 정제공장 고순도 니켈 생산 규모는 순니켈 기준 연산 5만톤으로 이는 전기차 약 120만대를 만



이동업 경상북도의회 의원(왼쪽부터), 김희수 경상북도의회 의원, 박용선 경상북도의회 부의장, 이상범 포항시의회 의원, 백인규 포항시의회 의원, 김학홍 경상북도 행정부지사, 이강덕 포항시장, 포스코홀딩스 김준형 이차전지소재총괄(부사장), 우사우거 CNGR 부회장, 유병욱 포스코퓨처엠 사장, 쑹중위엔 CNGR 한국지역 부회장, 천시열 포항제철소장이 지난달 31일 포항 영일만4산업단지에서 열린 포스코그룹과 중국 CNGR의 니켈 및 전구체 합작공장 착공식에서 착공 버튼을 누르고 있다. /포스코그룹

들 수 있는 양이다.

이날 함께 착공한 씨앤피신소재테크놀로지의 전구체 공장은 연산 11만톤 규모로 포스코씨앤지알니켈솔루션의 고순도 니켈을 이용해 전구체를 생산한다. 포스코퓨처엠은 씨앤피신소재테크놀로지가 생산한 전구체를 활용해 양극재를 생산할 계획으로 중간 소재인 전구체의 내재화율을 높여 벨류체인(가치사슬)을 강화함으로써 사업 경

쟁력을 높일 수 있게 된다.

포스코씨앤지알니켈솔루션과 씨앤피신소재테크놀로지는 총 약 1조5000억원을 투자해 니켈, 전구체 공장을 준공하고 2026년 양산을 시작할 계획이다. 니켈은 전기차용 이차전지의 용량을 결정하는 핵심소재로 그 수요가 지속 증가하고 있다. 전구체는 이차전지의 용량과 수명을 결정하며 양극재 원가의 약 60%를 차지하지만 2021년 기

준으로 국내 수요량 중 국내 생산량의 비중이 26%에 불과할 정도로 수입의 의존도가 높다.

김준형 포스코홀딩스 이차전지소재총괄은 “포스코그룹과 CNGR은 비즈니스 노하우와 기술력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이차전지소재 공급망을 갖추고 사업간 시너지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LG전자

직수형 냉장고 ‘스텝’ 론칭

LG전자가 2일 직수형 냉장고 새 브랜드 ‘스텝(STEM·사진)’을 론칭하고 구매와 구독 두 가지 방식으로 시장에 선보였다.



‘LG디오오브 제컬렉션 스텝’은 새로운 직수형 냉장고 브랜드로 식물이 줄기(영문: STEM)를 통해 물과 영양분을 전달하는 것을 모티브로 삼았다.

직수형 냉장고 스텝은 출수구가 있는 모델과 없는 모델 2가지 타입이다. 물통형 냉장고와 달리 물통 세척의 번거로움이 없고 더욱 위생적이다. 신제품 용량은 604~875리터(L)로, 12개 제품군이 순차 출시된다.

/김서현 기자 seoh@

삼성전자

‘인·식바꿈’ 프로모션 전개

삼성전자가 오는 9월 30일까지 AI 기술을 탑재한 인덕션과 식기세척기를 할인 혜택과 함께 제공하는 ‘인·식바꿈’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이번 프로모션은 여름철 가스레인지 사용의 불편함과 손 설거지의 번거로움을 덜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 기간 동안 오프라인 매장이나 삼성닷컴에서 인덕션과 식기세척기를 개별 구매 시 최대 30만원, 동시 구매 시 최대 75만원의 혜택을 제공한다.

이번 프로모션은 삼성전자가 4월 말부터 진행 중인 ‘인·식바꿈’ 캠페인의 일환으로, 가정의 달을 맞아 ‘비스포크로 인·식바꿈 N년차 신혼’ 이벤트도 함께 진행된다.

/김서현 기자

아메리칸 럭셔리 화려한 변신... ‘첨단·예술’ 작품 재탄생



캐딜락 ‘리릭’

기존 디자인 탈피, 글로벌 흥행가도 ‘얼티엄’ 적용... 충전 주행거리 465km

캐딜락이 세계 최초로 출시한 전기차 리릭이 국내에 공개됐다.

최근 현대차그룹을 비롯해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이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는 국내 전기차 시장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준대형 차량임에도 아메리칸 SUV의 크고 투박한 디자인을 완전 탈피했다. 오히려 첨단 기술을 대거 적용했으며 섬세한 디자인을 적용해 럭셔리 차량의 매력을 완벽하게 담아냈다. 덕분에 리릭은 북미 출시 후 완판 행진을 이어가고 있으며 중국에서는 사전계약만 5000대를 넘어서는 돌풍을 일으켰다. 국내 시장에서도 예상을 뛰어넘는 사전계약을 기록 중인 것으로



캐딜락 아틀리에 리릭 디스플레이존.

알려졌다.

지난달 29일 방문한 서울 강남구 ‘하우스오브지엠’에 마련된 캐딜락 리릭 전시장 ‘아틀리에 리릭’도 자동차보다 예술적인 감성을 곳곳에서 느낄 수 있었다. 하우스오브지엠은 한국지엠이 쉐보레와 캐딜락, GMC 등을 홍보하기 위해 만든 전시장이다. 그러나 현대 미술과 디자인 작품을 전시해 자동차 브랜드 전시장이 아닌 미술관을

방불케했다.

이 곳에서는 전문 해설사가 전시장을 안내해준다. 단순히 자동차와 부품 등을 소개하는 방식을 벗어나 다양한 예술 작품까지 만날 수 있었다. 가장 먼저 만난 전시 작품은 1층 입구의 비욘드 존에 위치한 ‘시적인 조각’이란 ‘커네틱 아트(움직이는 미술)’이다. 전시장의 전체적인 느낌을 표현하는 공간을 자동차가 아닌 예술 작품으로 구

성했다는 점에서 리릭의 성능을 넘어 디자인을 강조했음을 느낄 수 있다. 이어 헤리티지 존에서는 리릭의 디자인이 이어지는 점을 한 눈에 표현하는 렌티큘러 액자가 전시되어 있다. 렌티큘러는 보는 방향, 각도에 따라 다른 이미지가 보이도록 만든 그림을 말한다. 단순하게 설명해도 되는 리릭의 디자인을 특별함을 담아 표현했다.

또 테크 존은 리릭의 배터리, 주행 성능, 인테리어 등 혁신적인 기술력을 상징적인 숫자를 통해 체험할 수 있도록 마련됐으며, 2층으로 이어지는 인스퍼레이션 스테어에는 리릭의 라이팅, 디자인, 드라이빙 경험을 주제로 AI 아티스트 김지현 작가와 협업을 통해 완성한 작품 4점이 전시됐다.

한편 이날 공개된 리릭은 캐딜락 최초의 전기차로 GM의 전용 플랫폼 ‘얼티엄’을 적용해 1회 충전 주행거리는 465km이다. 전장은 4995mm로, 5m에 육박한다.

/양성운 기자

한국타이어

日 미쓰비시 OET 공급

한국타이어엔테크놀로지(한국타이어)가 타이어 기술 경쟁력을 앞세워 일본 완성차 브랜드와 파트너십을 강화한다.

한국타이어는 일본 미쓰비시자동차의 다목적차량(MPV) ‘엑스팬더’에 ‘벤투스 프라임 3’ 제품을 신차용 타이어(OET)로 공급한다고 31일 밝혔다.

엑스팬더는 2017년 첫 공개된 이후 동남아시아를 중심으로 꾸준한 판매량을 늘려오며 미쓰비시의 글로벌 전략 모델로 자리 잡았다.

엑스팬더에 장착될 벤투스 프라임 3는 고속주행과 안전 성능을 최적화해 편안한 주행감을 제공하는 프리미엄 컴포트 타이어로, 특히 유럽 지역에서 인기를 끌고 있다.

이 타이어는 유럽 최고 권위 자동차 전문지 ‘아우토티트’ 테스트에서 1위를, ‘에디아체모터벨트’ 테스트에서 최고 등급을 획득했다.

/양성운 기자

HD한국조선해양, ‘탄소 제로’ 암모니아추진선 신기술 공개

국제테크포럼

‘AI 선박 관리 시스템’ 등 선보

HD한국조선해양이 차세대 친환경 선박으로 각광받는 암모니아추진선의 안정성을 한 단계 끌어올렸다.

HD한국조선해양은 지난달 31일(현지시간) 그리스 아테네에서 전 세계 조

선·해운 관계자 100여 명을 초청한 가운데 ‘국제테크포럼’을 열고, 암모니아 연료의 독성가스 배출량을 제로 수준으로 줄이는 친환경 신기술을 선보였다고 2일 밝혔다.

이번에 HD한국조선해양이 독자기술로 개발한 일체형 암모니아 스크러버 기술은 배출되는 암모니아를 두 차

레에 걸쳐 흡수, 배출량을 제로(zero) 수준으로 낮출 수 있다고 회사는 설명했다. 또 배기가스가 나가는 배출구를 선원 거주 공간과 멀리 이격시켜 배치하는 독자 설계로 안전 요소를 더욱 강화했다.

HD한국조선해양은 이날 자체 개발 중인 ‘AI 선박 관리 시스템’과 ‘원격용

드론 시스템’도 함께 공개했다. HD한국조선해양은 이들 시스템을 암모니아추진선에 적용할 경우, 암모니아의 미세 누출원을 실시간으로 탐지할 수 있어 사고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HD현대중공업 박승용 사장은 “HD현대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가스선 건조 실적과 독자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며 “축적된 친환경 기술 노하우를 바탕으로 미래 선박 시장을 선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양성운 기자